

한국의 시약사업을 뒤흔든 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 가족들

(주)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 이력서

이름 : 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

생년월일 : 2006년 08월 22일



뒷줄 왼쪽부터 최예규 팀장 (사업지원팀), 박상우 사원 (사업 2팀), 강병수 사원 (사업지원팀), 김준희 사원 (사업 1팀), 김성중 팀장 (사업 2팀), 최창순 팀장 (사업지원팀), 홍재선 사원 (사업 1팀), 성진재 상무, 김민석 대리 (사업 1팀), 민춘성 사원 (사업 2팀), 최일범 대리 (사업 2팀), 이문규 대리 (사업 2팀), 정은영 사원 (사업지원팀), 이석자 사원 (사업 2팀), 이세나 사원 (사업 1팀), 신재영 대리 (사업지원팀), 최성호 사원 (사업 1팀), 허배도 사원 (사업지원팀)

연혁

- 2004. 01 Genebiotech으로 출발
- 2005. 01~ 2006. 08 뛰어난 영업력으로 시약 사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름
- 2006. 08 바이로메드와의 합병하여 최정예 member 구성!
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 탄생
- 2007. 01 다카라 단독 대리점 (서울, 경기, 강원지역)
- 2007. 01~ 활발한 활동으로 중흥무진 하고 있음!!
(To be continued...)

Tip.

(주)바이로메드의 팀분석

사업 1팀

- 서울지역의 강북, 국가기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5명의 영업사원과 1명의 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1팀 팀장님의 성격이 돋보이는 팀이지요.

사업 2팀

- 서울지역의 강남을 담당하며 경기, 강원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꼼꼼한 2팀 팀장님을 주축으로 6명의 영업사원과 1명의 코디로 멤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주)바이로메드는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지금까지의 생명공학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바야흐로 바이오 시약 사업에도 그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바이로메드 연구소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창사 이래 9년간 바이오 신약의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한 회사로서, 2005년 12월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하고, 2006년 미국 FDA 임상 1상을 승인 받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및 재조합 단백질 치료제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국내외에 27건의 등록된 특허와 34건의 출원중인 특허를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5개 제품 중 2건의 제품에 대하여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등 상업화 단계에 근접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대단한 바이로메드 연구소입니다.

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가 탄생한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많은 인원의 확충과 제도 및 조직의 정비를 통해 바이오 시약 산업의 분야에서 어느 회사보다 차별화 되고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TaKaRa, Clontech, LONZA(Cambrex), ATTO, Berthold-DS 등의 고품질의 브랜드들을 한국바이오 시장에서 더욱 그 중요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확보 함으로써 연구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한국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22명의 직원들이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주)바이로메드 시약사업부

홈페이지 : www.viromed.co.kr

Tel : 02-414-6333

Fax: 02-414-6334